

# KIA, 장신 투수 가농 영입 ... 내년 마운드 기대되네

### 193cm 키에 시속 155km 빠른 공 장점...체인지업·커브 등 땅볼 유도형 올 시즌 ML 메츠서 3승 1패...브룩스·커터와 90년생 외인 트리오 완성

KIA 타이거즈가 '1990년생 3인방'으로 2020 시즌 외국인 사단을 구성했다.

KIA가 10일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출신의 우완 드류 가농(Drew Gagnon·29)을 영입했다. 또한 올 시즌 함께 했던 외국인 타자 프레스턴 터커(Preston Tucker·29)와도 재계약하면서 2020시즌 외국인 선수 구성을 마무리했다.

앞서 KIA는 지난달 14일 맷 윌리엄스 감독과 올랜도 애슬레틱스에서 한술밥을 먹었던 우완 애런 브룩스(Aaron Lee Brooks·29)와 계약을 하며, 외국인 선수 구성의 첫 단추를 끼웠다.

드류 가농은 계약금 20만 달러 연봉 65만 달러 등 총액 85만 달러(10억1000여만원)에 계약(옵션 별도)을 맺고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게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인 드류 가농은 우완 정통 파로 신장 193cm, 체중 97kg의 체격을 지니고 있

다. 메이저리그에서 2시즌, 마이너리그에서 9시즌을 활약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통산 23경기에 출장해 5승 2패 평균자책점 7.32를 기록했다. 마이너리그에서는 9시즌 동안 223경기(선발 163경기)에 나서 44승 50패, 4.54의 평균자책점을 남겼다.

올 시즌에는 뉴욕 메츠에서 중간계투로 뛰면서 18경기에 나와, 3승 1패 평균자책점 8.37을 기록했다. 특히 마이너리그(트리플A)에서는 15경기를 모두 선발투수로 나서 88.2이닝을 소화하며, 6승 5패 평균자책점 2.33을 기록했다.

최고 시속 155km의 빠른 공을 보유한 드류 가농은 체인지업, 커터, 커브 등을 섞어 던지는 땅볼 유도형 투수다. 큰 키와 부드러운 투구 폼에서 나오는 빠른 공의 구위가 좋고, 체인지업의 각도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KIA는 이와 함께 외야수 터커와도 총액 85만 달러(계약금 30만·연봉 55만)에 재계약을 마쳤다.

해설베이커의 대체 선수로 지난 5월 팀에 합류한 터커는 올 시즌 95경기에 나와 타율 0.311, 9홈런, 50타점, 50득점으로 공격의 첨병 역할을 했다.

터커는 "KBO리그 최고의 팀 동료, 열정적인 팬과 내년에도 호흡할 수 있어 기쁘다"며 "올 시즌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 시즌에는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올 시즌 KIA는 외국인 선수를 모두 교체하는 승부수를 던졌지만 결과는 실패로 끝났다.

야심차게 영입한 제이콥 터너가 5.46의 평균자책점으로 7승 13패의 성적을 내는데 그쳤고, 윌랜드 역시 평균자책점 4.75, 8승 10패의 아쉬운 성적표를 제출했다. 해설베이커 역시 11경기를 끝으로 짐을 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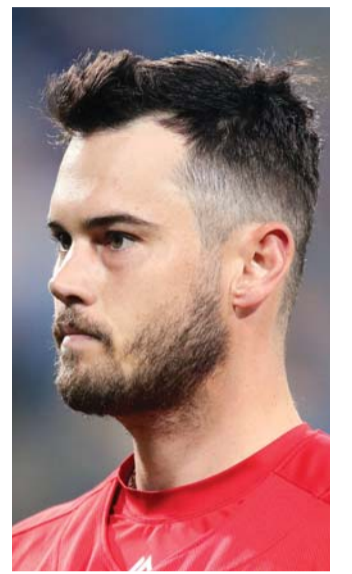
외국인 선수들의 동반 부진 속에 KIA는 순위 싸움에서 동력을 잃고 7위로 시즌을 마감했다.



가농



브룩스



터커

KIA는 팀 역사상 첫 외국인 사령탑을 앞세워 2020년을 왕조 재건의 원년으로 삼았다. 검증된 터커를 중심으로 새 외국인 원투펀치로 진용을 세

로 짰 '호랑이 군단'이 90년생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저연차·저연봉 선수 제주서 캠프 프로야구선수협 다음달 6일부터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회장 이대호·이하 선수협)가 저연차·저연봉 선수들을 대상으로 '서귀포 트레이닝 캠프'를 운영한다.

선수협은 10일 "내년 1월 6일부터 2주간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와 함께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비활동기간 트레이닝 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트레이닝 캠프는 서귀포시의 선수 전용 트레이닝센터, 실내 야구장 등의 시설에서 진행되며, 제주도 서귀포시의 후원과 대한트레이너협회의 지원으로 운영된다.

이번 서귀포 트레이닝 캠프는 저연차·저연봉 선수들의 비활동기간 자율훈련 지원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김용일 코치(전 LG·류현진 전담 트레이너) 및 스티브 홍(스포츠타이머)을 비롯해 현직 프로야구단 트레이너 10여 명이 재능기부에 나선다.

캠프는 전지훈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예방 트레이닝과 선수들의 개인별 트레이닝 루틴을 만드는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 선수들은 별도의 트레이닝 비용 없이 숙식비만 부담하면서 부상 예방 능력과 운동능력 향상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안병훈 생애 첫 프레지던트컵 내일부터 호주 멤버론

"처음 탈락했다는 전화를 받고선 엄청나게 실망했지만, 결국은 이곳에 왔다."

대륙간 골프 대항전 프레지던트컵에 막자로 합류한 안병훈이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안병훈은 12일부터 호주 멤버론의 로열 멤버론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프레지던트컵에 인터내셔널 팀의 일원으로 출전한다.

애초 12명의 선수 선발에서는 탈락했지만, 부상 때문에 출전하지 못하게 된 제이슨 데이(호주) 대타로 인터내셔널 팀 단장 어니 엘스(남아프리카공화국)의 호출을 받았다.

그는 "팀에 뽑혔다는 전화를 받고 알뜰했었지만, 뭘 뜻이 기뻐"면서 "난생처음 출전하게 돼 기대되고 설렌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프레지던트컵에는 안병훈과 임성재, 2명의 한국 선수가 출전한다.

안병훈은 "여러 나라 선수로 구성된 인터내셔널 팀에서 호주 다음으로 한국 선수가 많은 셈"이라면서 임성재와 함께 호흡을 예고했다.

"내가 뽑히자 (임)성재가 축하한다는 문자를 보냈다"는 안병훈은 "여기 와서는 아무래도 서로 의지가 된다. 좋은 호흡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안병훈과 임성재는 적어도 한번은 같은 조로 경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안병훈은 "단장 엘스가 우리가 한 팀이라는 점을 각인시키고 있다. 팀 분위기가 좋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안병훈은 선수로도 뛰는 미국팀 단장 타이거 우즈(미국)와 맞대결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투지를 보였다.

그는 "우즈와 겨루게 돼도 내가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국 컬링 남자도 있어요~"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을 노리는 한국 남자컬링 국가대표팀의 이기복(가운데)이 10일 중국 칭하이성 시닝에서 열린 '국제 컬링 엘리트 2019' 남자부 네덜란드 팀과 경기에서 스톤의 궤적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 치열한 순위 싸움에 K리그 '관중 대박'

### 1·2부 총 관중 237만명 전년비 51% ↑ ...광주 FC 5만6669명 두배 증가

치열한 순위 싸움과 몰입도 높은 경기가 K리그의 뜨거웠던 2019시즌을 만들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올 시즌 K리그는 2013년 승강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1, 2부 합계 관중 230만명(237만6924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157만628명에서 51% 증가한 수치다.

시즌 최종전까지 1위 싸움이 전개된 K리그1에는 182만7061명의 관중이 찾았다. 2014년 이후 5년만의 180만 관중이다.

광주FC의 1위 독주로 눈길을 끌었던 K리그2는 53만6217명의 관중을 기록, 지난 2013년 K리그2 출범 이후 처음 50만 관중을 넘어섰다.

경기당 평균관중은 K리그1 8013명으로 승강제 출범 이후 첫 평균관중 8000명을 넘었다. 지난해 대비 47.2%의 증가세다.

K리그2도 평균관중이 1707명에서 2946명으로 72.6% 증가했다.

K리그 22개 구단 중 21개 구단이 관중 증가세를 보이며, K리그 전반적인 인기 상승세를 보였다. 올 시즌 K리그2로 강등된 전남드래곤즈만 6만2303명에서 4만1249명으로 관중이 감소했다.

K리그2 우승을 내달린 광주FC는 2만7393명에서 5만6669명으로 관중이 급증했다. 지난해 대비 두배 가량 증가했다.

흥미로운 순위 싸움이 마지막까지 흥행을 이끌었다. K리그1은 최종전 휘슬이 울릴 때까지 우승컵의 향방이 결정되지 않았다. 1라운드부터 38라운드까지 울산현대와 전북현대는 6차례 1위 자리를 맞바꿔지며 치열한 우승 경쟁을 했고, 전북의 역전 우승으로 시즌이 끝났다.

FC서울과 대구FC의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 진출권 경쟁도 마지막까지 계속되는 등 두 팀의 라이벌 구도도 흥미로웠다.

경남FC, 인천유나이티드 그리고 제주유나이티드는 10라운드부터 38라운드까지 10-12위권에서 '생존 경쟁'을 펼쳤다.

몰입감 있는 '90분'도 2019시즌 흥행의 한 요인이 됐다.

K리그1에서 90분 이후 타진 골은 모두 52골에 이른다. 전체 593골 중 9%가 마지막 순간 터지면서 경기의 긴장감을 더했다.

K리그2의 득점은 증가했다. 지난해 430골(경기당 평균 2.36골)이 나온 K리그2는 올 시즌 500골을 넘겼다. 경기당 평균 2.74골이 터지면서 팬들을 환호케 했다.

화력 증가에 0-0경기는 감소했다. K리그1 전체 228경기에서 득점 없이 마무리된 경기는 21경기. K리그2는 전체 182경기에서 12경기가 0-0 무승부로 끝났다.

'스타 선수'들도 K리그 인기 상승에 한몫을 했다. 2018 러시아월드컵에서 활약한 조현우(대구), 문선민(전북), 김보경(울산) 등이 K리그 무대를 질주했다. '엄살리' 엄원상(광주), 이광연(강원), 오세훈(아산), 황태현(안산), 이지솔(대전) 등 U20 월드컵 준우승 주역들도 K리그 인기 상승에 역할을 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